

# 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특판예금 출시...“지역발전 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한 특판예금 상품이 잇따라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하고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NH농협은행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를 찾아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 1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더 큰 미래를 압도적인 성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장재영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이 참석해 신상품 출시를 기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은 가입 기간 12개월의 정기예금 상품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총 판매 한도는 1000억원이다. 기본금리는 연 2.85%이며,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 특별시 출범 축하 메시지 등을 남기

농협은행, 최고 3.15% 금리

민형배 시장 예금 1호 가입

판매액 0.1% 공익기금 조성

광주은행, 최고 3.50% 금리

지역업 고객 찾아 상생 다짐

면 우대금리 0.30%p를 더해 최고 연 3.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 축하 응원 댓글을 남긴 고객 가운데 260명을 추첨해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이번 예금 판매액의 0.1%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 발전과 상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은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날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랑예금'을 출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일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 1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이 상품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역민과 함께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이며 가입 기간은 13개월,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다. 광주은행 영업점과 광주Wa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축하 0.20%p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랑통장' 보유 고객 0.10%p 등 최고 연 3.50%



광주은행 임직원과 순천역 인근에서 청과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본 금리 3.20%)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순천·목포·광주 등 지역 상권을 지켜온 거래 고객을 찾아 상품 출시 의미를 공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응원했다.

박대하 광주은행 부행장은 "지역의 새

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연 4.5% 예금까지...저축은행 수신 경쟁 '재점화'

정기예금 평균금리 한달새 0.54%p ↑  
조달비용 부담 커져 실적 악화 우려도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한 달 새 0.5%p 넘게 상승하고 연 4.5%의 정기예금이 등장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 호황에 따른 '머니부브'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 상품 공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86%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 1일보다 0.54%p 높아진 수치다.

수신 상품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은 전무하다가 한 달 만에 105개로 늘어났다. 연 4%대 금리를 내건 저축은행만 32곳에 달한다.

연 4.5% 금리 상품도 등장했다. 광주 OK저축은행이 연 4.5%의 금리를 내건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예규은·OK·NH저축은행

등 3곳이다.

다만, 시장 과열 조짐도 포착된다. 지난 18일 라온 저축은행이 연 4.6%의 예금 상품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금리 경쟁으로 레고랜드 사태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22년 저축은행들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6%대 상품을 특판하는 등 예금 금리를 끌어

올렸다.

이후 만기가 집중되면서 이자 비용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대규모 적자와 건전성 악화라는 후유증을 겪었다. 당시 고금리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시 조달 비용 상승이 시작된 셈이다.

현재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중금리대출 공급액

의 80%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가능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중금리대출을 늘려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시장 전반의 기준금리 상승 기조까지 겹치면서 수신 경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저축은행업권의 하반기 실적 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중앙회는 최근 'NH AX Launch Day 2026'를 열고 범농협 AI 대전환(AX)을 공식 선포했다.

## 'AI 대전환' 본격화...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농협, 문서 작성·지식관리 등 AI 업무환경 구축

농협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NH AX Launch Day 2026'를 열고 범농협 AI 대전환(AX)을 공식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추진하는 AI 대전환 전략을 계승하고 전국 농·축협으로 확산하고,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AI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체계와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행사에서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AI 전문가들을 AX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농협은 이들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AI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은 올해 하반기 농업인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농업인 에이전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영농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실제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내부 업무 환경의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범농협 생성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업무환경을 구축해 업무지식관리시스템(KMS), 문서 요약,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AI 대전환은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최신 AI 기술을 농업 현장과 업무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직으로 도약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반도체 호재도 못 막은 매도...코스피 2% 하락

외국인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코스닥 30주년, 1% 상승  
원·달러 환율 1554원 넘어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장중 상승세를 반납하고 8300선으로 후퇴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5.02p(1.36%) 오른 8591.50으로 출발해 173.07p(2.04%) 하락한 8303.4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11억원, 71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린 반면, 개인은 1조7401억원 순매수했다.

## 전남농협, 농작업대행 직영사업 활성화 논의

권역별 현장 컨설팅 추진...AI·첨단 농기계 활용 기반 마련

농협 전남본부는 1일 해남·진도 지역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담당자들과 농작업대행 직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영 농작업대행 활성화를 위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예외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농기계은행사업 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사업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 중 연기금 등의 순매도액은 2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4745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장 직후 공개된 한국의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해 매수세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었다. 그러나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줄였고,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이 6월 말 유예 조치가 종료된 리밸런싱을 이날부터 재개, 국내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5.84%)가 급락해 31만원대로 밀려났으며, SK하이닉스(-3.40%)도 250만원대로 내려섰다. 현대차(-1.52%), LG에너

지솔루션(-3.87%), 삼성물산(-7.36%), KB금융(-0.31%), SK(-8.51%) 등도 내렸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이날 출범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장보다 13.17p(1.44%) 오른 929.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를 판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거 담는 흐름이었다.

외국인이 코스닥시장에서 2341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96억원, 124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554.9원을 나타냈다. 전날 1549.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2009년 3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날 하루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구글, 또 공정위 심판대 앱마켓 경쟁 제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저제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본사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을 지난 2023년 제재 후 또 반복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의 게임사 22곳과 체결한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핵심은 게임사가 신작을 플레이스토어에 경쟁 앱마켓보다 우선 출시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하는 대신 구글이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유튜브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넷마블과 넥스, 엔씨소프트, 컴투스, 퍼블비스 등이 계약에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라이엇게임즈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커질수록 지원 규모도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계약 구조가 결과적으로 윈도스 등 경쟁 플랫폼의 사업 기회를 축소하고 국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은 약 14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우편요금 5년만에 인상 규격우편 430원→500원

국내 우편요금에 5년 만에 인상돼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통 요금에 43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에 따른 사업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편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편요금 변경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만이다.

연합뉴스